

문화코드로 읽는 동양 삼국의 화장실

이 왕 기

화장실 따라가기

한국사람이 일본여행을 하였다. 어느 호텔에 들러 편지를 쓰려다가 편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말이 서툴렀던 여행자는 필담으로 '便紙'라는 글씨를 써 보였다. 호텔종업원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잠시 후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주었다. 여행자는 고개를 갸우뚱 했다. 호텔종업원은 便所에서 쓰는 종이(紙)를 찾는 것으로 이해하고 갖다주었던 것이다.

일본사람이 중국여행을 하였다. 어느 호텔에 들어 편지를 쓰려다 편지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말이 서툴렀던 여행자는 몸짓 발짓하다가 필담으로 '手紙'라는 글씨를 써 보였다. 호텔종업원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화장지를 갖다주었다. 중국에서는 '手紙'가 화장지를 지칭한다. 같은 의미를 이렇듯 다른 글자로 표현한다.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생리현상은 먹고, 싸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나 싸는 곳은 공통이다. 그 공통의 장소가 각 나라마다 갖가지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중국에서는 '축소(廁所)', 일본에서는 '오테아라이(お手洗い)', 한국에서는 '화장실'로 정착되었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의미라도 이렇게 달리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솔직하게 '싸는 곳(廁所)'으로, 일본은 '손을 씻는 곳', 한국은 '화장하는 곳'으로 부르고 있다. 그 문화적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의 廁所, 일본의 오테아라이(お手洗い), 한국의 화장실 중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일까?

중국에서는 악취를 따라가면 화장실(廁所)이 나타

난다. 일본에서는 향기를 따라가면 화장실(お手洗い)이 나타난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똥'과 관련된 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는 것은 3국이 공통된 해몽이다. 그러면서도 옛부터 화장실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어서 드러내 놓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화장실은 후미진 곳, 잘 안 보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뒷간'이라 부르게 되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뒷간취급은 우리와 같지만 중국은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지니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뒷간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개념을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는 의미로 '便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흔히 '廁所'라고 하는데 실은 '廁'라는 글자를 써서 뒷간을 의미한다. '치'는 다른 말로 '구석의 한자리에 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화장실



[그림 1] 화장지를 대신했던 옛날의 밀뎅개(나무 틈 사이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

이 왕 기 Mokwon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leewk@mokwon.ac.kr)

을 나타낼 때 廁所 외에 ‘廁間’, ‘廁室’, ‘廁溷’ 등 여러 가지 말이 있다. 지금도 이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화장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면서 ‘便所’라는 말을 썼으나 나중에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 지금은 ‘손 씻는 곳’을 의미하는 ‘오테아라이(お手洗い)’ 또는 영어의 토일렛(Toilet)을 일본화 한 ‘토이레(トイ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시대에 따라 적절한 용어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문물에 대한 수용이 남달리 빨랐던 일본인들의 국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화장실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지만 버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에 멀지도 가깝지도 않을 정도로 적당히 떨어져 놓았다. 앞쪽보다는 뒤쪽에, 잘 안보이는 곳에 두었다. 그래서 뒷간이라고 불렀다. 젓간, 작은집이라는 말도 쓰였고, 대변을 먹는 돼지(豕)가 있어 ‘통시칸(甕豕間)’인지, ‘똥 시(屎)’자에서 비롯된 ‘통시칸’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통시칸’이라는 용어도 있다. 廁間, 廁所에서 비롯된 ‘척간’이라는 말도 쓰였다. 근심을 덜어준다는 의미로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도 쓰인다. 일제 때 便所라는 말이 들어와 사용되다가 다시 요즘에는 化粧室이라는 말이 정착된 것 같다. 북한에서는 ‘위생실’이라는 말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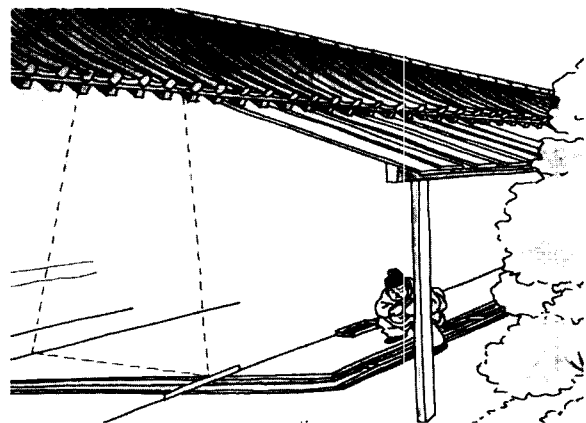


[그림 2] 고대 수세식화장실 발굴흔적(일본 平城京에서 발굴된 것으로 도랑에 물을 흘려 보내고 그 위에서 일을 본다.

옛날에는 인구가 적고,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모두 다 마찬가지였다.

한국이나 중국사람들은 뒷간이야기를 그렇게 드러내 놓고 하지 않는다. 간혹 우스개의 화제가 될지언정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논의주제가 되지 않는다. 배설은 인간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기에 화재거리가 되기 힘들다. 그것은 다만 인간의 자연적인 생리현상이며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상의 일일뿐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더러운 것도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드러내 놓 다음 그것을 고치는 한이 있어도 묻어놓고 씌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더럽고 보기가 싫어도 큰 피해가 없으면 대충 덮어두는 것이 중국인들의 습성이라면 더럽고 귀찮은 것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고쳐 쓰는 것이 일본인들의 습성이다. 더러운 화장실이라도 집안에 끌어들이려면 위생적으로 고쳐야 하는데 일본인들은 그렇게 고쳐서 집안에 두었던 것이다.

배설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내관을 거치는 동안 형상이 변질되어 나오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것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먹을 음식물을 기르는 역할을 하게 되니 결국 모든 물질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순환하는 셈이다. 이러한 순환법칙을 이해했었기 때문에 서양



[그림 3] 일본 平城京에서 발굴된 수세식화장실을 근거로 당시 상황을 상상하여 그린 복원도

과 달리 동양에서는 배설물조차도 버리지 않고 농작물을 기르는 거름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일종의 재활용이었다.

인분을 칭하는 ‘糞’은 ‘쌀(米)이 밭(田)과 함께(共) 있다.’는 의미이다. 인분의 다른 글자로 ‘屎’가 있다. 주관할 ‘尸’에 ‘米’가 곁친 것이니 곧 ‘쌀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결국 인분은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순회하는 자연의 법칙을 글자에서 읽을 수 있다. 지금은 오물로 취급하고 있지만 따져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구조이다.

이렇듯 친환경적인 순환구조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차츰 뒤로 사라지고, 재래식 화장실은 순환구조를 이해 못하는 서양인들의 흥밋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 비록 편리한 서양의 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뒷간도 변소도 화장실도 그것은 흙이 아니라 고유한 문화이고 민속이다. 밝은 곳에서 떼떽하게 이야기하자.

건축문화로 본 3국의 '똥시간(糞屎間, 糞豕間)'

화장실은 주택의 한 부분이지만 다른 공간에 비해 그리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취급은 한자문화권의 동양 3국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림 4] 중국의 사합원주택(외부에서 보면 폐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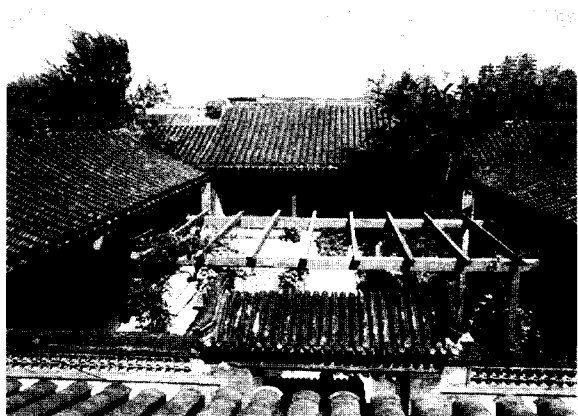
주택의 한쪽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또는 아예 집안에 두지 않는 주택구조였다.

세 나라의 주택을 대상으로 형태 구조적 특징을 보면 외관은 폐쇄적이면서 내부공간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개방적으로 변화된다. 3국이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하다. 그러나 자세히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화장실을 건축물과 같이 만들어 사용한 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 동양의 한·중·일 3국은 그나마 일찍부터 화장실을 사용한 민족에 속한다.

3국 중에서 비교적 일찍이 화장실을 집안에 들여놓았던 일본은 3국 중에서 가장 깔끔한 화장실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비해 화장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국은 아직도 냄새나는 화장실을 지니고 있다. 3국의 건축문화적 특징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자.

좀처럼 변화에 둔감한 중국

중국 주택은 그림 4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는 창호가 크지 않다. 주로 내부로 향하는 벽면으로 큰 창호를 두고 외부로는 작은 창호를 둘 뿐이다. 외부의 창호가 작은 대신 내부로 향하는 창호를 키우지 않으면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도, 환기도 어렵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림 5와 같이 중국 주택은 담 안으로 들어가면 밖



[그림 5] 중국 사합원주택의 안마당인 院子(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개방적이다.)

에서 보는 것 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주택에 주로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벽돌이다. 벽돌의 이미지는 무겁고 강하고 폐쇄적이다. 중국주택의 외부형태가 폐쇄적으로 보이는 것은 외부로 노출된 창호를 작게 만들고 여기에 차갑고 무겁게 보이는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합원(四合院)주택이다. 중국 주택의 외부형태가 이렇게 폐쇄적인 것이 중국인들의 습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은 쉽게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어쩌면 주택구조와 국민성이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중국의 주택에서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아마 폐쇄적인 주거공간의 탓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내 어디를 다녀봐도 공중화장실을 찾기 힘들다. 폐쇄적인 집구조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 자랑할 곳도 못되니 굳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서인지도 모른다.

중국인들은 대개 참을성이 많은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이 참을성을 배우는 곳이 바로 대가족제도하에서의 주택이다. 많은 식구들, 거기에는 몇 사람의 소실과 배다른 자식들, 며느리들, 그리고 그 후손들 심지어 4대, 5대, 직계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대가족에는 하인들 모두가 한 울타리 내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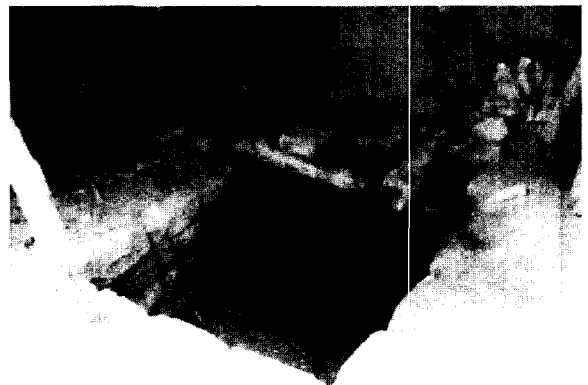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들은 필연적으로 공동 생활을 해야하며 이와 같은 공동생활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왔던 것이다. 예절에 어긋나는 개인행동을 용서치 않고 대인 관계를 익히며, 도덕적 성격이 형성되면서 위계질서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중국인의 참을성을 배우고, 나아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도록 만드는 것이 가족제도에서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배설행위는 단순히 그 행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 공중화장실 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오래 견디는 것도 중국인들의 인내심의 발로가 아닐까?

중국인은 감정을 표시할 때 아주 신중하며 직접적인 감정표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내면에 관계되는 생활의 일체이며 상당히 엄격하게 지켜진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약간의 감정조차 표시하려 들지 않는다. 심지어 이별이나 사망 시에도 노골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기쁨이나 슬픔도 왕왕 자기의 기분만 표시할 뿐 탄드시 언어와 태도로 나타내지 않는다. 연인간에 공개적으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심지어 부모와 자녀간에도 공개적으



[그림 6] 중국 산서지방의 동굴주거인窯洞(퇴적층지대에 주로 많이 살고있다)



[그림 7] 요동의 화장실 내부(트여있는 것이 한국의 옛날 농촌화장실과 같다.)

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중국인의 감정이 마비되고 우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이렇게 감정을 억제하려는 중국인들의 습성은 배설행위에 임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남녀만 구분되었지 내부는 특 터져 있다. 중국인들은 배설행위에서도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을 것이다. 특 터진 공간에서 함께 일을 보면서 옆 사람이 힘껏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그 또한 민망한 일이다. 중국인들의 감정 억제 습성은 공중화장실에서 그 전가가 발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이 감정표현을 극도로 자제한 것은 위신과 체면 중시한 국민성에도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신이라는 말은 '미엔즈(面子)'라고 한다. 面은 사람의 얼굴을 의미하며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남들 앞에 자신의 위신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체면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격 존중과 자신 스스로에 대한 인격 존중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위신이 낮아졌다고 할 때는 스스로를 달랠 수 있지만 체면이 손상되었을 때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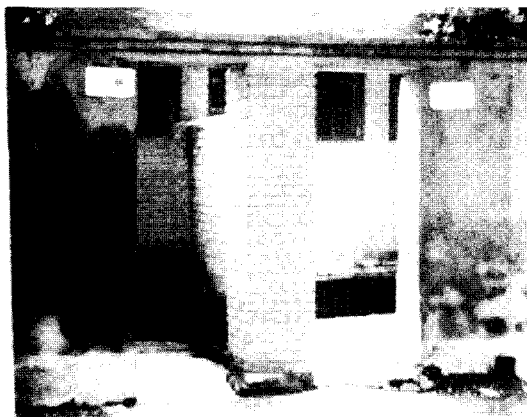
중국에서 화장실 문화는 "점잖은 체면에 무슨 화장실 얘기냐"라는 생각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에서 우스꽝스러운 배설행위는 또한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므로 모욕감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 때문에 화장실에서 배설행위조차도 점잖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중국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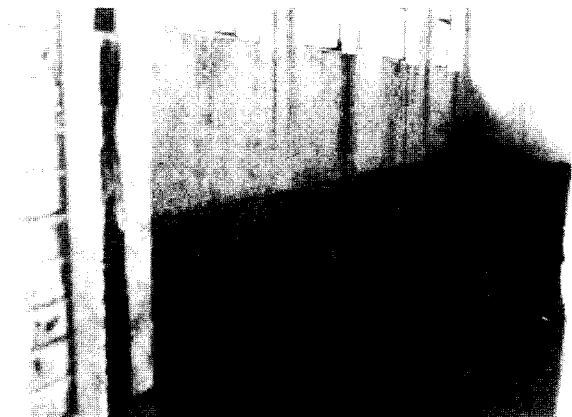
일본인들이 화장실을 집안에 끌어들이면서 깨끗하게 사용하는 공중범절을 지키도록 강요한 것에 비해 중국은 굳이 이러한 범절을 지킬 필요까지는 없었다. 화장실 구조가 범절을 지키기 만큼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용어 중에 '비에관시엔스(別管閑事)'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다. 앞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말리지 않을 만큼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국인의 민족성이다. '靑官難斷家務事'라는 속담도 있다. '아무리 현명한 관리라고 할지라도 한 가정의 일은 쉽게 재판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화장실이 특 터져 있는 이유도 '비에관시엔스' 정신이 있었기에 큰 반발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남이야 옆에서 무슨 일을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배설행위든 용을 쓰는 행위든 관여할 것도 없으니 흥분 것도 없는 것이다. 독특한 중국인의 개인주의를 엿볼 수 있다. 남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남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의미도 깃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관계가 폐쇄적으로 보여도 한번 알



[그림 8] 북경의 공중화장실(외부에서 보면 폐쇄적이고 어둡다)



[그림 9] 북경의 공중화장실 내부(칸막이 없이 구멍만 있다. 개방적이다)

게되면 것처럼 개방적일 수가 없다. 특 터진 공중화장실 안에서 불일을 보다가도 서로 말문이 터지면 마치 십년지기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개방적인 것이 중국인이다. 주택도 밖에서 보면 폐쇄적이어도 안으로 들어가면 개방적으로 변하는 것이 마치 중국의 국민성을 닮은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 화장실 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은 문화적 배경도 있지만 어찌보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경제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인은 접근하기 전까지는 폐쇄적이어도 일단 알게되면 개방적으로 변하는 습성이 있다. '立竿見影'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곧 깨끗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적용성의 귀재 일본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 주택의 특징은 외관의 폐쇄성이 그리 강하지 않고 내부공간의 개방성도 외관과 극단적으로 대비될 정도는 아니다. 일본은 한반도나 중국대륙 보다는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을 지니고 있다. 혹독한 겨울추위 보다는 습기가 많은 끈적끈적한 여름 무더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집짓기를 하고 있다. 그 방법은 문을 크게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함으로써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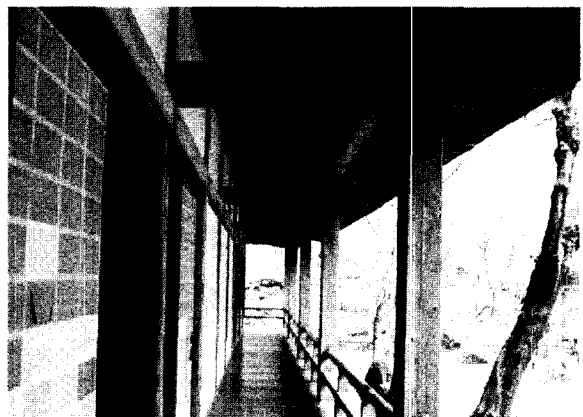
여기에 지진이라는 독특한 지질조건은 중국과 같이 횡력에 약한 벽돌을 주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주택의 주재료는 목재이다. 목재가 지닌 이미지는 부드럽고 친근하며 벽돌에 비해 개방성이 크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택이 중국에 비해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내외에 문이 많고,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후에 기가 막히게 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본의 건축적 특징 중에는 개인시설보다 공중시설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일본의 개인주택이 한국의 주택에 비해 협소하다. 그러나 함께 쓰는 건축물은 크거나 많거나 깨끗하다는 것이다. 궁전이나 사찰의 규모를 보면 한국의 그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봉건시대 일반 백성들은 권력을 잡는 지배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웠던 격변의 일본 역사는 자신보다는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국민성이 길들여졌고, 그 결과 건축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城)이나 절은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도 한다. 장군이 천황을 1년에 한번 알현하는 처소 이조성(二條城)은 전체 면적이 9만여 평에 건물 면적은 2천700여 평이다. 몇 차례 화재 후 1709년에 재건된 동대사 대불전의 높이가 47m로 세



[그림 10] 일본 주택의 內庭(동양 3국에서 가장 개방적이다)



[그림 11] 일본 주택의 外庭(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개방성은 비슷하다)

계 최대의 목조 건물이다. 불전 안에 있는 불상 콧구멍 크기는 성인 한사람이 누워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이다.

개인주택은 보잘 것 없을 정도로 협소한 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만드는 것이 일본의 국민성이다. 내 집을 크게 하거나 치장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다.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활 습성이 오랜 기간동안 일본인들에게 몸에 배어 내려오면서 일본 특유의 집단주의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집단주의의 극치는 일본 단체관광객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인들은 한편으로 아주 작은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다. 무엇이든 작게 만들거나 작은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를 지니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본의 도시에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두었다. 그 근처에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역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그리고 작은 것에 집착할 정도로 관심을 지닌 축소지향적 국민성에 기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고온 다습한 기후특성상 음식이든 신체든 전 축이든 청결하지 않으면 병이 생기기 쉽다.

이런 기후 때문에 어려서부터 청결교육을 철저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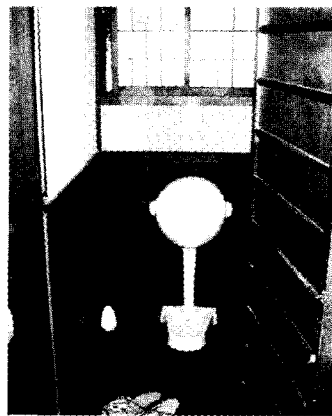
[사진 12] 일본 주택의 外庭(외부에서나 내부에서나 개방성은 비슷하다)



[사진 13] 농촌주택 화장실내부



[그림 14] 에도시대 일본주택內庭



[그림 15] 주택 내의 소변기



[그림 16] 주택 내의 대변기

킨다. 지금은 수세식화장실이 보편화 되어있지만 저장식 화장실은 높은 온도로 인해 쉽게 부패하고 벌레가 생기기 십상이다.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일본인의 청결 습성은 여기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에도시대 화장실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습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청결습성을 생활 속에 규격화(?) 시켰다. 일본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더러운 놈'은 '나쁜 놈'보다도 더 모욕적인 욕이다. 청결이 몸에 밴 탓이다.

일본의 국민성 중에는 작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 거의 모든 일을 작고,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옛날 일본사람들은 건축물을 만들 때 건축유형에 따라 기둥크기, 기둥간격, 서까래 크기, 간격 등 몇 가지 규격을 정하여 모든 건축물은 이 규격에 맞도록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기와리(木割り)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도 '도(道)'라고 하는 자로 규격화하였다. 그들의 국민성이 아닌가 생각된다. 배설하는 것도 결국 법식이 있는 하나의 '예절'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일본인들은 규격과 형식을 좋아한다.

공중화장실을 규격화하듯이 많이 만들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습성은 이러한 기후조건과 집단주의, 그리고 작은 것에 관심을 지닌 국민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시콜콜 드러내 놓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화장실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다. 일본 텔레비전을 보면 "뭐 저런걸 다 방송하나?"싶을 정도로 일상사에서 하찮은 일까지 까발겨 놓는다. 이런 국민성이 화장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화장실'이라는 단독주제로 논문이나 단행본을 발간하는 일은 보기 어렵지만 일본에서는 화장실에 관한 단행본은 물론이거니와 학위논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민족성을 이해할 것도 같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타니자끼준이찌로(谷崎潤一郎)가 「음예예찬(陰藝禮讚)」이라는 책에서 화장실 공간을 표현한 내용은 압권이다.

“茶室도 좋긴 하지만 일본의 변소는 참으로 정신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것들은 반드시 안채에서 떨어져 신록의 냄새나 이끼 냄새가 나는 듯한 정원수 수풀 뒤에 마련되어 있고 복도를 통해 가는 것인데, 그 어둑어둑한 광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하게 빛나는 장지의 반사를 받으면서 명상에 잠기고 또는 창밖 정원의 경치를 바라보는 기분은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더러운(?) 화장실을 이처럼 예찬한 것은 아마 일본



[그림 17] 사찰 근처에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그림 18] 문을 등기고 앉은 일본의 화장실

인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타니 자키는 온기가 따뜻하게 나오고 타일을 정갈하게 붙인 서양식 화장실에 비해 나무로 만들어 경관이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을 더 좋아했다. 이처럼 좀 거론하기가 꺼려지는 주제도 일본인들은 기가 막히게 재생산해 낸다. 타니자키의 이 글을 읽고 있으면 그 화장실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화장실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실생활에 접목시킨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의 전통적인 화장실은 문 쪽을 향해 앉는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안쪽을 향하여 앉는다. 처음 문쪽을 향해 앉는 한국의 화장실을 보고 의아해 했다는 일본인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 이유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인 유학이 주자학이 아니라 양명학(陽明學)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즉 주자학 보다 예를 덜 중시했던 양명학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검증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본의 화장실 문화는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적응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양 3국에서도 특이하게 문을 등지고 앉아 볼일을 보는 화장실문화는 일본의 '칼의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되기도 한다.

동양에서 누구보다 일찍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적응시킨 일본인들의 민족성은 화장실 문화에서도 잘 표출되어 있다.



[그림 19] 강원도 너와집의 화장실은 집에 붙여 외부로 노출되어 있다.

철저히 자연 순화적인 한국

한국의 주택에서 외부의 폐쇄성은 중국의 그것에 비해 비교적 개방적이지만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는 폐쇄성이 강하다. 외부의 폐쇄와 내부의 개방을 대비해 볼 때 중국의 그것처럼 극단적으로 변화되거나 일본의 그것처럼 대비성(對比性)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간쯤 되는 것 같다. 혹독한 겨울이 있는가 하면 고온다습한 여름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사용재료에서 중국처럼 벽돌을 쓰지는 않지만 한국은 흙벽과 온돌을 만들어 추위에 대비하고, 개방된 마루와 커다란 창호를 둬으로써 고온다습한 여름 기후에 대비했던 것이다. 적당히 목재를 혼용함으로써 부드러운 느낌과 개방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우리네 화장실은 중국과 같이 무시한 것처럼 만들지도 않고, 일본처럼 집 안에 들여놓은 것도 아닌 적당히 떨어져뜨려 놓고 있다. 그 형태는 폐쇄적이기도, 개방적이기도 않는 형태이다. 벽은 있으되 문을 달지 않아 기척을 느낄 수 있고, 살창을 두어 바람이 잘 소통되도록 하였다.

한국의 화장실은 집안에 들여놓은 일본과는 달리 철저히 집밖에 둔다. 꼭 필요하다면 휴대용 화장실 요강을 사용한다. 화장실이 반드시 밖에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에 밖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과 가까



[그림 20] 너와집 화장실은 적당히 벽 틈이 벌어져 흠기는 하지만 환기가 잘된다.

이 덩으로써 비료로 사용하기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집 안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궁전과 칩첩산중에 자리잡고 있는 너와집과 같은 외딴 집이다. 궁전은 따로 둘 수 없는 집 구조 때문이고, 너와집은 맹수 피해 때문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화장실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거름생산형이고, 또 하나는 사료활용형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농경민족이 낳은 형태적 특징이라 하겠다.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중국의 영향을 받든, 이 땅에서 창조되었든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온 것이니 우리 것이 되었다.

비료 생산형은 인분을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地心을 두우가위해서는 거름이 가장 좋고 단시간에 좋은 거름을 생산하는 것으로 삭힌 인분이 최고이다.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재를 섞거나 풀을 뜯어 섞어주면 냄새도 제거하고 삭히기도 좋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완벽한 재활용이다. 따라서 인분을 오물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사료활용형은 주로 돼지에게 인분을 먹이는 방법이다. 화장실을 누각처럼 높여 만들고 그 아래 칸을 돼지우리로 만들어 불일 보는 즉시 사료로 변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편한 일이 어디 있는가. 다른 곳에서 불 일을 보는 것은 사료를 함부로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전통문화이고 생활민속이다. 어쩌면 동양 3국 중에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재 활용적인 화장실 문화는 한국인지도 모른다.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의식 때문에 외면해 버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안에 들여놓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려주는 순박한 생각으로 취급했던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화장실 문화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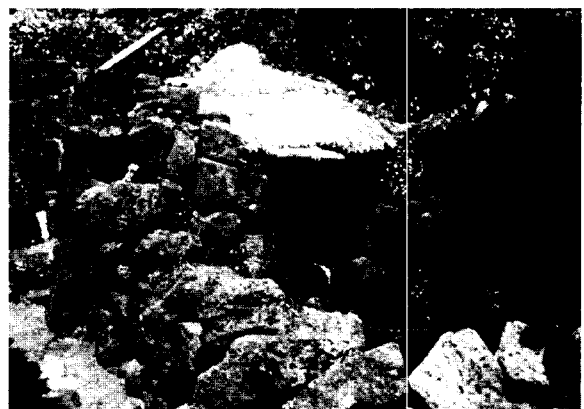
맺음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화장실은 산업사회로 인해 도시화되면서 나타난 필연적인 현상이다. 말하자면 자원이 오물로 전락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미처 함께 변화시키지 못했던 공공시설 중에는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다. 급격하게 변화되는 도시화 현상은 도시기반을 만드는 속도에 비해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에 늘 도시기반 치다꺼리에 바빴다. 공중화장실도 도시기반이었지만 다른 기반시설에 비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시행착오였다. 자원이 오물로 변했지만 오물처리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1985년에야 비로소 화장실 협회가 창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협회



[그림 21] 한국의 뒷간은 철저히 집과 떨어져 놓는다. 사진과 같이 잿간과 같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림 22] 제주도 민가 화장실 외부



[그림 23] 제주도 민가 화장실 내부

에서는 매년 전국의 좋은 화장실 10개를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기도하고 공중화장실의 질적 향상과 문화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 화장실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화장실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인들의 집단주의에 힘입어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일본의 현대적인 공중화장실 개조사업은 건축가들에게는 자신의 조형감각을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되기도 했다.

늦기는 했지만 한국에서도 1998년 한국관광공사에서 화장실문화운동을 시작하였고, 1999년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결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곧 개최될 월드컵축구대회는 시민문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게되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원래 화장실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서양사람들은 이와 같이 깨끗하게 단장된 화장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독특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리가 없다.

‘아름다운 화장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아름다움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에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마음, 자연과 잘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마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화장실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이 많이 만들어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한국의 관광1번지 강원도는 이 문화운동의 중심에 서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도 한편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이 너무 서양적 개념으로 의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만의 뒷간 민속문화, 오물이기 이전에 자원으로 생각했던 뒷간문화, 자연순환적이고, 자연과 함께 하는 ‘뒷간문화’를 관광1번지 강원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㉔